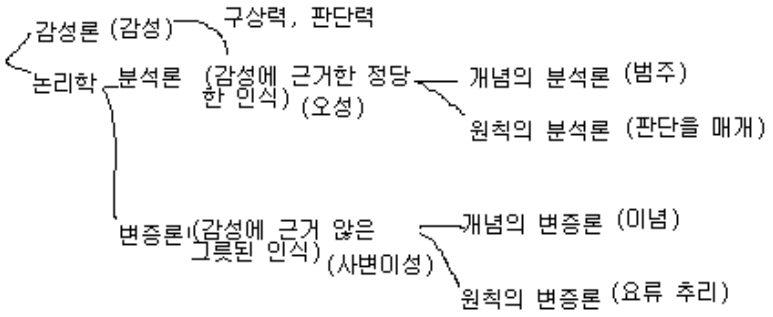
제13강 원칙의 변증론

◆이념과 오류추리, 그리고 영혼의 오류추리
(1교시)
※학습목표: 이념과 오류추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첫 번째 오류추리인 영혼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분석론과 변증론
-분석론: 진리의 논리학.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이 있다. 개념은 하나하나의 개념을 다룬 것이고, 원칙은 그 개념들을 판단으로 이어서 본 것이다.
-변증론: 가상의 논리학.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이 있다. 가상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변증론의 개념(이념)이다.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념론이고, 그걸 이어 말하면 변증추리(오류추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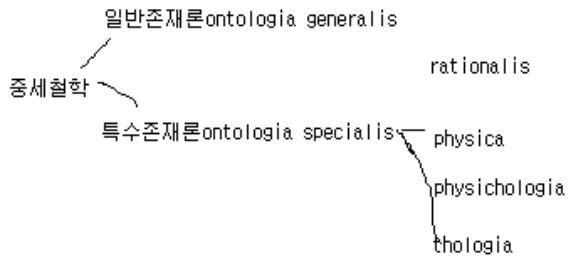


▲3가지 이념
-가상의 추리로 빠지게 하는 이념은 크게 '영혼, 세계전체, 신' 3가지다.
-중세철학은 일반존재론ontologia generalis과 특수존재론ontologia specialis이 있다. 특수 존재론에는 physica, physichologia, thologia가 있다. 이들은 rationalis다. 계시가 아닌 철학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칸트의 작업은 이를 해체하는 것이다.

*참고사항
데카르트의 형이상학도 중세의 형이상학과 같다. 영혼과 육체를 사유와 연장이란 속성을 가진 유한실체로 놓고, 신을 무한실체로 상정한다. 라이프니치에게는 세계가 모나드고, 영혼은 특수한 형태의 모나드가 된다. 그리고 신이 있다.
서양철학은 이러한 구도에서 이루어지며 그래서 칸트도 선험적 이념을 영혼, 세계전체, 신으로 놓는다. 그리고 이를 해체하려 한다.

▲3가지 오류추리
「그러므로, 변증적 이성추리에는 이념의 수와 같은 세 가지 종류만이 있고, 이성추리의 결론은 이 세 종류의 이념에 각각 귀착한다.
제1급의 이성추리에서 나는 어떠한 다양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주관이라는 선험적 개념에서 이 주관 자신의 「절대적」 통일을 추리하되, 이런 [단순한] 주관자신을 나는 이해함이 없다.

www.artnstudy.com



이런 변증적 추리를 나는 선험적 오류추리라고 부르겠다.

제2급의 궤변적 추리는, 주어진 현상에 대한 제약들의 계열의 「절대적」전체0성이라는 선험적 개념 〔의 설정〕을 노리는 것이다. 즉 한쪽 편 계열의 무제약적 종합적 통일에 관해서 내가 언제나 자기모순적 의미를 갖는 데서, 나는 이것의 반대의 편에서 하는 통일이 정당하다고 추리하나, 그러나 이 바대편의 추리도 나는 이해함이 없다. 이런 변증적 추리를 할 무렵의 이성의 상태를 나는 이율배반이라 말할 것이다.

최후로 제3종의 궤변적 추리에 따라서 나는 주어질 수 있는 대상 일반을 사고하는 제약들의 전체성에서, 「사물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약들의 「적대적」인 종합적 통일을 추리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갓 선험적 개념에 의해서 아는 바 없는 사물에서 출발하여, 모든 존재자의 보질〔하느님〕같은 것을 추리한다. 그러나 나는 초험적 개념에 의해서 이런 본질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의 무제약적 필연성에 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종류의 변증적 추리를 순수이성의 이상이라 하겠다.」

-잘못된 변증 추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영혼에 관련된 오류추리, 세계전체에 관련된 이율배반, 신에 관련된 이상이다.

▲첫 번째 오류추리 : 영혼론

「1.마음〔영혼혼〕은 실체다.〔관계〕

2.성질상 단순하다.〔성질〕

3.마음은 그것이 있게 되는 시간이 달라도 수적으로 동일하다. 즉 단일이요, (다수성이 아니다.)〔분량〕

4.공간중의 가능한 대상들과 관계하고 있다.〔양상〕」

「〔마음이라는〕실체는 한갓 내감의 대상으로는 비물질성의 개념을 주고, 단순한 실체로서는 불후성(불멸성)의 개념을 준다. 또 실체의 자기 동일성은 지성적 실체로서 인격성을 주다. 이상의 세 성질이 합해서 정신성의 개념을 준다.」

-이는 영혼을 둘러싼 전통적인 명제들이다. 전통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영혼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를 오류추리라고 한다.

▲실체성의 오류추리

「첫째, 실체성〔비물질성〕의 오류추리

한 사물의 표상이 우리 판단의 절대적 주어〔주체〕요 따라서 그것 외의 딴 사물의 규정〔술어〕로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사물은 실체다〔대전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나의 모든 가능적 판단의 절대적 주어〔주체〕요, 이 나 자신의 표

www.artnstudy.com

상은 그 외 딴 사물의 술어로 사용될 수가 없다〔소전제〕.
  그러므로, 생각하는 존재(마음)으로서의 나는 실체다〔결론〕.」
-영혼론의 첫 번째 추론이다. 영혼이 실체라는 것에 추론이다.

▲칸트의 비판
「이성추리는 사고의 항존적인 논리적〔형식적〕주어를 속성의 실재적 주어의 인식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중략) 「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각은 의식 중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나의 논리적 〔형식적〕의의 이외에, 이런 주어〔주관〕자체에 관해서 나와 그 모든 사고된 것의 근저에 기체로서 있는〔주관자체〕를 도무지 아는 바 없기 때문이다. (중략) 마음의 개념이 이념에서의 실체만을 말하고 실재적인 실체를 말하지 않음을 가르친다면, 마음〔영혼〕은 실체이다라는 명제는 십분 승인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얘기에서 주어가 실재한다는 존재론적인 명제로 넘어갔다는 비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체화했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영혼의 오류추리
(2교시)
※학습목표: 영혼의 오류추리에 대한 논거와 비판을 따라가 본다.

▲단순성의 오류추리
「둘째, 단순성 〔불후성〕의 오류추론
어떤 사물의 작용이 작용하는 많은 사물의 경합으로 간주될 수 없다면, 그런 사물은 단순하다 〔대전제〕.
그런데 마음 즉 생각하는「나」는 이런 사물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어떠어떠하다 〔생각하는 나는 단순하다, 결론〕.」
-이런 식의 추론은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온다. 영혼불멸을 논쟁할 때 이런 식의 얘기가 등장한다.

*참고사항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플라톤, 박종현역, 서광사, 2003

▲칸트의 비판
「이 논증의 핵심은 다음의 명제 중에 성립한다. 즉「하나의 사상을 형성하자면 많은 표상은 생각하는 주어의 절대적 통일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다. (중략) 무릇 사고된 것의 전체가 분할되고 또 많은 주관에 배분될 수 있다치더라도, 주관인 나는 분할될 수도 없고 분배될 수도 없다. 우리는 모든 사고된 것에 있어서 그런 사정을 전제하고 있다. (숨은 대전제)」
「그러므로, 첫째의 오류추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통각의 형식적 명제가, 이성적(계시적의 반대) 심리학의 전 기초요, 이 기초로 향해서 이성적 심리학은 자신이 인식 확장을 감행한다. 물론 이 명제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통각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 형식인 어떠한 경험에도 부착하고 그것에 선행한다. 」
-형식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나」라는 표상에 의해서 항상 주관의 〔일반〕논리적인 절대적 단일성(단순성)을 내가 상기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인해 내 주관의 현실적인 단순성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나는 실체이다」라는 명제는 내가 구체적(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순수범주」를 의미할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단순한 실체다. 다시 말하면 이 실체의 표상은 다양한 것의 종합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 나에게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한 실체라는〕개념 혹은 〔나는 단순한 실체라는〕명제는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나 자신에 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실체라는 개념 자신은 그 아래에 직관이 두어지

www.artnstudy.com

지 않아도, 따라서 객관이 없어도 단지 종합〔결합〕의 기능으로서만 사용되고, 우리의 인식 조건은 되더라도 지적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 명제의 사이비 유용성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그것자체가 경험적 내용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순수논증일 뿐이다.

▲인격성의 오류추리
「셋째, 인격성〔동일성〕의 오류추리
시간이 다름에도 자기 자신의 수적인 동일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한에서 인격이다〔대전제〕.
그런데 마음은 어떠어떠하다〔수적인 동일성을 의식하고 있다.〕〔소전제〕.
그러므로, 마음은 인격이다〔결론〕.」
-양에 관련된 인격성의 오류추리다.

▲비판
「이에 서로 다른 시간임에도 내 자신을 의식함의 동일성은 나의 사고된 것과 「사고된 것들의 결합」과의 형식적인 조건일 뿐이요, 그런 동일성이 내 주관의 수적 동일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자아가 논리적으로 동일하다해도 또 〔개별적〕주관에다 「나」라는 같은 이름을 허용한다해도 그것의 동일성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는 않는 변이가 주관 안에 생길 수 있다.」

▲비판의 흐름
-세 가지를 논박하는 요점은 유사하다. 형식적인 것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형식적인 것을 실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념상의 오류추리
「넷째, (외적 관계의) 관념상의 오류추리
사물의 존재가 주어진 지각의 원인이라고만 추론될 수 있다면, 그런 사물의 실재는 의심스럽다〔대전제〕.
그런데 외적 현상 전체의 존재는 직접으로 지각될 수 없고 주어진 지각의 원인으로서 추리될 수만 있는 종류의 것이다〔소전제〕.
그러므로 외감의 전대상의 실재는 의심스럽다〔결론〕. 이 불확실성을 나는 외적 현상의 관념성이라고 말하고, 이런 관념성에 관한 학설이 관념론이다. 관념론과 비교해서 외감대상이 확실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나의〕이원론이다.」
-외적 사물도 모두 실재가 아니라 관념으로 보는 것이다. (불교적 사고, 버클리의 사고)

▲칸트 철학의 구조
-칸트에게는 관념으로 모든 것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가 있다.
「transendental ideality선험적 관념성+empirical reality경험적 실재성」
-현상이란 것은 이미 우리 감성의 선험적인 조건인 시공간과 오성의 선험적 조건인 범주를

www.artnstudy.com

통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선험적 관념론이다. (이에 매몰된 것은 버클리다.) 그러나 칸트는 어디까지나 경험적 실재성을 인정한다.

▲오류추리론의 의미
-사변이성의 오류추리론은 결국 형식에 불과한 것을 실체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객관적 실체를 모두 흡수하는 것이다.
-결국 오류추리론은 플라톤으로부터 내려오는 영혼론의 중심명제들을 오류추리라고 비판한 것이다.

◆세계와 신에 관한 오류추리
(3교시)

www.artnstudy.com

※학습목표: 세계와 신에 관한 오류추리를 살피고 칸트의 윤리에 대해 언급한다.

▲두 번째 오류츄리: 세계

「1. [분량] 일체 현상을 포괄하는 주어진 전체의 합성의 절대적 완전성 [의 이념]
2. [성질] 현상에서 주어진 전체의 분할의 절대적 완전성 [의 이념]
3. [관계] 현상 [일반] 의 발생의 절대적 전체성 [의 이념]
4. [양상] 현상에 있어서 가변적인 것의 [우연적] 존재의 의존성의 절대적 완전성 [의 이념] 」

1번은 무한에 대해서이다. 유한성과 무한성의 문제다.
2번은 어떤 원자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물리학적인 좁은 의미의 원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원자다. 근원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본질이다.
3번은 자유에 대한 것이다. 세계에 자유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4번은 신에 대한 문제다.

▲세계의 오류추리 요약

-이율배반: 이 세계는 무한다고 말해도, 유한다고 말해도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자체로서는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면 모순된 것의 두 가지가 모두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미묘하게 다르지만, 고전적인 용어로는 역설paradox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경험내용)에 근거해서 정당한 인식을 꾀할 때는 이율배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상을 넘어서 이 우주의 본체, 근본에 대해서 말하면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것이다.

▲분량의 이율배반

「**정립: 세계는 시간상 시초를 가지며 공간상으로도 한계 지어져 있다.**
반정립: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의 한계를 갖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나 공간에 있어서나 무한하다.」

▲정립의 증명

-시간이 무한하다고 하자. 그럼 무한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앞의 시간은 무한한데, 우리는 이미 바로 전에 미래였던 시간에 도달해 있다. 이미 무한한 시간을 거쳐서 온 것이다. 그런데 무한을 통과할 수 없으니 무한하다며 거쳐서 올 수 없다. 그러니 시간은 무한할 수 없다.

▲반정립의 증명

-시간을 유한하다고 하자. 우주가 언젠가 생겨났다고 하자. 그 전에는 절대 무였을 것이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오는가?

▲비판의 마무리

-우주는 무라는 것도, 우주는 유라는 것도 나름대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모순된 것 두 가지를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해도 맞다. 그러므로 무의미하다.

www.artnstudy.com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추상적인이고 형식적인 논증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질의 이율배반

「정립: 세계 내의 합성된 실체는 그 어느 것이나 단순한 부분들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거나 단순한 것에서 합성된 것만이 실재한다.

반정립: 세계 안의 어떤 합성물도 단순한 부분들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단순한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원자론에 관한 것이다.

▲정립의 증명

「이렇고 보면, 합성을 사상상으로 제거하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거한 뒤에도 「합성 없이 존립하는 어떤 것」즉 단순한 것이 남아있어야 한다. 」

-모든 합성된 것을 계속 쪼개보면 마지막에 무언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얻어야 비로소 복합물을 설명할 수 있다.

▲반정립의 증명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실재는 서로 외재하는 다양을 포함하고, 그러므로 합성적이요, 그러면서도 실재적 합성물로서, 속성에서 된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속성들은 실체가 있어야만 병존하고, 실체가 없으면 병존할 수 없기에) 실체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것이 곧 실체적 합성물이란 말이 된다. 이것이 자기모순이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복합물이란 뜻이다.

▲관계의 이율배반

「정립: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원인성은, 그것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현상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성이 아니다. 현상을 설명하려면 그것 이외에 자유에 의한 원인성을 상징함이 필요하다.

반정립: 자유란 것은 없다. 세계의 만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만 생긴다.」

-정립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반정립은 자유는 없고 법칙만 있다는 것이다.

▲정립의 증명

「일체가 전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항상 제 2차의 시초만이 있고, 처음의 시초는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차로 소급하는「원인 축 계열의 완료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세계가 완전히 법칙으로 지배된다면, 인과로 소급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딘가에는 원인이 없는 시발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한히 소급된다면, 자유가 없다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게 된다. 그것은 윤리학에 직결된다.

▲반정립의 증명

「경험의 통일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자유는 어떤 경험 중에서도 발견인 없이는 아무 것

www.artnstudy.com

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점에, 자연법칙은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인과와 자유가 공존하다면, 이 세계에 대한 통일적 설명은 포기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불가능하다.

▲양상의 이율배반
「**정립: 세계에는 그것의 부분으로서거나 혹은 그것의 원인으로서거나 간에, 단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존재 〔하느님〕 가 있다.**
반정립: 단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는 세계 안에서거나 세계 밖에서거나 일반적으로 세계의 원인으로서 실재하지 않는다.」
-양상의 이율배반은 세 번째인 신에 대한 오류추리와 연관된다. 본 강의에서는 신에 대한 오류추리 논의를 양상의 이율배반에 대한 주석으로 보며, 따라서 더 다루지 않는다.

▲정립의 증명
만약에 내가 이 세계에 근본원인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무한소급에 빠진다.

▲반정립의 증명
신을 상정할 경우에 우리가 이 세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리학
-관계와 양상의 이율배반antinomy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천이성비판에 가면 있는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이율배반이다. 그런데 '있다'는 쪽으로 요청(가정)을 해야만 윤리학의 기초가 선다고 한다.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말할 때는 이율배반이라 하는데, 실천철학으로 가면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도덕의 정초가 세워진다고 본다.

*참고사항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임마누엘 칸트, 이원봉역, 책세상, 2002

www.artnstudy.com